

소설에 나타난 공동체 교육 요소
-이청준의 「천년의 돛배」, 이신조의 「엄마와 빅토리아」,
황순원의 「맹산할머니」를 중심으로-

양 선 미**

■ 목 차 ■

I. 머리말	IV. 존재 나눔으로서의 함께-있음 : 황순원, 「맹산 할머니」
II. 전일적 삶을 지향하는 유기적 공동체 : 이청준, 「천년의 돛배」	V. 맺음말
III. 이질적 존재들의 소통 공동체 : 이신조, 「엄마와 빅토리아」	

[초록]

요즘의 대학생들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개인의 발전만을 도모하는 가운데 인성의 파괴를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관계의 갈등을 그리며 기본적으로 공동체적 삶에 대한 지향을 목표로 하는 소설은 그러한 학생들에게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공동체를 모색함으로써 참 삶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첫째로 소설은 전일적 삶을 지향하는 유기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다. 유기적 공동체는 세계의 총체성이 살아 있는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은 나와 타자가 운명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둘째로 소설은 이질적인 존재들의 소통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다. 소통을 통해 개인들은 ‘우리’가 아닌 ‘너와 나’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와’에 의해 내밀함을 추구함으로써 이질적인 존재들과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셋째로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표인 존재 나눔으로서의 함께-있음을 소설은 보여주고 있다. ‘함께-있음’은 ‘죽음’이라는 인간의 유한성을 공동체의 원리로 삼는데 ‘죽음’은 아무 것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의 불가능한 연합을 가능하게 한다. 학생들은 소설을 읽음으로써 위와 같은 공감을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 2013S1A5A2A03045279)

** 목원대학교 국어교육과 강사. novelist21@hanmail.net

통해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공동체, 총체성, 유기적 공동체, 이질적 존재, 소통, 존재 나눔, 함께-있음,
공감

I. 머리말

이 글의 목적은 소설에 나타난 공동체 교육 요소를 살펴보는 데 있다. 요즘의 대학생들은 “연합과 융합”¹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인간의 생물적, 사회적 기본 필요의 충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위”²인 공동체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이는 혈연, 지연 등 동일성을 요구하는 공동체의 부정성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동일성의 공동체는 집단의 소속감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포섭되지 않는 차이를 배제”³하며 지배와 복종의 메커니즘을 조장해왔다. 그 결과 “개인적 잠재력과 정신적 행복을 위협하는”⁴ 공동체는 배격해야 할 것으로 인식되었고 “천민적 공동체주의”⁵라는 오명을 입게 되었다.

개인들은 더 이상 ‘우리’를 상상하지 않게 되었다. 대신 자아 성찰, 자아 실현 등 개인의 정체성과 그로 인한 ‘나’의 정립을 현대를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나’의 정립은 신자유주의의 도래와 더불어 ‘성공’과 동일시되었고, 성공은 무한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야함을 의미했다. 그러는 가운데 무한 경쟁은 타자를 더 이상 연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적대적인 존재’로 인식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타자’는 ‘적대적’ 존재가 아닌 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공동체의 ‘절대적’ 존재이다.⁶ 인간은 공동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타자’가 없이 나를

1. Maurice Blanchot·Jean-Luc Nancy(2005). 『밝힐 수 없는 공동체/마주한 공동체』(박준상 역), 문학과 지성사, 19쪽.
2. 김형주·최정기(2014). “공동체의 경계와 여백에 대한 탐색”, 『민주주의와 인권』14권 2호, 161쪽.
3. 허정(2013). “유한성과 취약성이라는 공통성”, 『다문화콘텐츠연구』14호, 415쪽.
4. 홍은숙(2002). “공동체주의 교육의 개념 연구: 사회적 실제에의 입문으로서의 교육”, 『교육사교육철학』27집, 178쪽.
5. 심성보(2000). 『도덕교육의 담론』, 학지사, 417쪽.

완성할 수도 없다. 실제로 공동체 의식을 잃어버리고 ‘나’의 정립을 위해 ‘홀로’ 질주하는 대학생들은 “공존재로서 인간의 본질에 대한 망각, 인성의 파괴”⁷를 일상적으로 경험하며 극도의 피로감과 소외감을 호소하고 있다.

좋은 문학은 그러한 상황에 놓인 학생들에게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공동체를 모색하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⁸ 또한 더불어 사는 삶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해답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사로 이루어진 소설은 지혜를 체득하게 하고 삶에 대해서 성찰할 기회를 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공동체적 요소가 잘 나타난 소설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동체적 삶을 내면화할 수 있을 것이다.⁹

좋은 문학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혼란”¹⁰ 역시 공동체 요소를 잘 나타낸 소설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된다. 많은 서사 문학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의 갈등을 그리며 공동체적 삶에 대한 지향과 좌절을 보여주는 가운데 독자에게 “전통적인 경건함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자신의 생각과 의향을 자주 맞닥뜨리게 되는 고통을 가져다”¹¹준다. 요즘의 대학생들은 노력만 하면 “성공을 쟁취할 수 있다는 환상”¹²아래, 무비판적으로 타자를 배제하고, 넘어서고 무너뜨리며 성공을 향해 질주하고 있으나 정작 성공의 의미에 대해서는 깊게 사고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자신의 삶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거나 삶의 중요한 한 대목에서 왜 다른 행동이 아닌

6. 아렌트에 의하면 인간이 실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생명으로서 살아있어야 하고, 자연의 필연성에서 벗어난 영속적인 세계를 가져야 하며 말과 행위를 통해 세계를 공유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Hannah Arendt.(1996). 『인간의 조건』(이진우·태정호 역), 한길사.)

7. 김수이(2014). “공동체, 나눔, 글쓰기-공동체에 대한 재인식과 ‘공-존재’로서 글쓰기 주체의 위상 재정립”, 『한국언어문화』 제54집, 143쪽.

8. 이때의 공동체는 동일화를 강요하거나 차이를 배제하지 않는, ‘어두운 면’이 거세된 새로운 시대의 공동체를 말한다. 이전에는 주로 공동의 목표, 공통의(일치된) 도덕과 신념이 강조되었다면 현재는 공동체의 구성 원리로 다원성과 특수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나아가 근래의 논의들은 선이나 도덕에 대한 공정한 혹은 보편적 고려는 불가능하다거나 이상화로 인한 억압을 비판하고, 통일성을 비판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김형주·최정기, 앞의 논문 166쪽 참조.)

9. 양선미(2015). “공동체 교육에 있어서의 소설 활용 가능성 연구”, 『한국학연구』 제52집, 139쪽.

10. Martha C. Nussbaum.(2013), 『시적 정의』(박용준 역), 공리, 33쪽.

11. 위의 책, 34쪽.

12. 허정(2013). 앞의 논문, 411쪽.

이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는 채 행동한다면, 그러한 삶은 ‘잘’사는 삶이라고 할 수 없”¹³으며, 성공한 삶이라 말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다른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나가는 가운데 다양한 삶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면서 자신들이 옳았다고 믿었던 것들에 대해 회의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어떤 삶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지를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 또한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공동체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문학 작품을 활용한 공동체 교육에 관한 연구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 중 김수이의 연구는 공동체와 인성의 관계를 정치하게 분석하고 있다.¹⁴ 정명중과 정재립 역시 소설이 어떻게 감성¹⁵과 공감능력¹⁶을 신장시키는지를 꼼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 외에 대부분의 연구는 문학 작품을 활용하여 공동체 인식과 인성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와 독서 방법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문학작품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긴다.¹⁷

이 논문은 소설에 나타난 공동체적 교육 요소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작업은 학생들이 공동체의 미덕을 이해하고 그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독서는 “감정에 대한 인식을 명료화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인의 삶에 공감”¹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기 때문이다.

-
13. 방진하(2014). “맥킨타이어 ‘서사적 자아’개념의 교육적 의미 탐색”, 『교육철학연구』제 36권 제2호, 81쪽.
14. 김수이(2014). “공동체, 나눔, 글쓰기-공동체에 대한 재인식과 ‘공-존재’로서 글쓰기 주체의 위상 재정립”, 『한국언어문화』제54집.
김수이(2013). “공동체 지향 글쓰기”이론 정립을 위한 시론: 인성교육의 가능성 및 교육방법론 개발을 위한 시론”, 『한국문예창작』12권 2호.
15. 정명중(2011). “감성 공동체의 발견”, 『감성연구』3권 1호.
16. 정재립(2013). “공감의 상상력과 문학교육”, 『어문논집』69호.
17. 강계화, 손은령(2006). “문학텍스트를 통한 인성교육”, 『교육발전논총』27호.
김성룡(2013). “인성교육을 위한 문학교육”, 『청람어문교육』47호.
최숙기(2013). “인성 교육을 위한 독서지도 방안”, 『청람어문교육』47호.
최경희(2005). “문학독서를 통한 인성지도”, 『새국어교육』70호.
한철우·박영민(2004). “독서 클럽 활동을 통한 인성 지도”, 『독서연구』9호.

그를 위해 이 글에서는 공동체적 요소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전일적 삶을 지향하는 유기적 공동체, 이질적 존재들의 소통 공동체, 존재 나눔으로서의 함께-있음이 바로 그것이다.¹⁹ 이와 같은 공동체 요소는 단일한 본질을 우선으로 하여 전체주의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동일성의 공동체가 아닌,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면서도 타인과의 소통과 감응을 자연스럽게 체득케 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나’의 정립과 ‘우리’의 공통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동체가 ‘나’와 ‘타인’간의 간극을 좁히고 궁극적으로 ‘우리’라는 공통분모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앞에 언급한 세 가지 공동체의 양상은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를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공동체적 조건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텍스트로는 이청준의 「천년의 돛배」, 이신조의 「엄마와 빅토리아」, 황순원의 「맹산할머니」를 대상으로 삼았다. 이 세 작품은 각기 수준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면서도 공동체적 요소를 어느 작품보다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공동체 교육에 적합한 텍스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Ⅱ. 전일적 삶을 지향하는 유기적 공동체: 이청준, 「천년의 돛배」

퇴니스는 인간 결합의 양상을 인격 전체로서 결합하는 게마인샤프트와 존재의 부분만으로 의도에 의해 참여하는 게젤샤프트로 나누었다. 그런 뒤 게마인샤프트에서 게젤샤프트로의 이동이 역사의 발전 과정이라고 보며 게마인샤프트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위험한 시도라고 주장하였다.²⁰ 파펜하임 역시 “게마인샤프트가 끊임없이 게젤샤프트에 굴복하는 과정이 우리들의 운명인 것 같다”²¹고 말하며 이를 피할 수는

18. 최숙기(2013). 앞의 논문, 209쪽.

19. 김수이는 전일적 삶을 지향하는 유기적 공동체를 동일성의 공동체의 가장 긍정적인 방식이라 말하며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근본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김수이(2014), “공동체, 나눔, 글쓰기-공동체에 대한 재인식과 ‘공-존재’로서 글쓰기 주체의 위상 재정립”)

20. Fritz Pappenheim(2003). 『현대인의 소외』(황문수 역), 문예출판사, 58-69쪽 참조.

21. 위의 책, 66쪽.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여러 면에서 공동체에 대해 생각할 여지를 남겨준다. 첫째는 “신에게서 버림받은 세계”²²에 사는 근대인의 비극적 운명에 대한 확인이다. 현대인들은 게마인샤프트의 회복을 위해 수많은 공동체를 만들어냈지만, 동일성의 강박과 타자의 배제만 극대화하는 비극적인 “사이비게마인샤프트”²³만을 양산해 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공동체를 상상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적 실존성이다. 주지하다시피 “인간사의 영역은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인간관계들의 그물망으로 이루어”²⁴어졌기 때문에 공동체를 잃어버리는 순간 인간은 “소외”²⁵를 경험하며 비인간화될 수밖에 없다.

소설은 공동체가 가진 이러한 딜레마²⁶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줌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게 할 수 있다. 또한 폭력적인 억압과 차이의 배제를 근간으로 하는 ‘어두운’ 공동체가 아닌 진정으로 타자와 함께 하는 방식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전일적인 삶을 지향하는 유기적 공동체이다.

유기적 공동체는 세계의 총체성이 살아 있는 공간이다.²⁷ 이곳에서 모든 존재는 “하나의 생명체와 같이 연결되어 있다. 개인과 공동체는 운명을 같이하며 동심원의 합일 관계를 형성”²⁸한다. 진정한 의미의 게마인샤프트라고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유기적 공동체의 전형을 이청준의 『천년의 돛배』는 잘 보여주고 있다.

22. Georg Lukacs.(1985). 『소설의 이론』(반성완 역), 심철당, 113쪽.

23. Fritz Pappenheim(2003). 앞의 책, 67쪽.

24. Hannah Arendt(1996). 앞의 책, 245쪽.

25. 소외라는 개념은 마르크스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심화되어 갈수록 인간이 목적이 아닌 수단화되며, 중국에는 자기 자신도 수단으로 타락시켜 다른 힘의 노리갯감으로 만드는 소외의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고 보았다.(Fritz Pappenheim(2003). 앞의 책, 82-85쪽 참조.)

26. 실존을 위해 추구할 수밖에 없지만 결과적으로 인간을 분열하게 만드는 양가성.

27. 근대소설은 선형적 좌표와 형이상학적 고향을 상실한 시대에 서사시적 총체성의 세계를 다시 찾으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서사 양식이다. 근대 소설에서 주인공은 버림받은 세계와 갈등을 일으키며 총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이청준의 『천년의 돛배』는 총체성이 확보된 공간 자체를 보여줌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진정한 공동체의 전형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공동체 교육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28. 김수이(2013). “공동체, 나눔, 글쓰기-공동체에 대한 재인식과 ‘공-존재’로서 글쓰기 주체의 위상 재정립”, 148쪽.

「천년의 돛배」는 하나밖에 없는 딸을 육지로 시집보내고 그리워하다 죽은 어미와 어려운 시집살이 때문에 섬에 있는 엄마에게 가지 못하고 결국 산후통으로 죽은 딸을 마음 아파하고 두 사람의 넋을 위로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는 공동체의식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참 기이한 일이었구나. 딸아이가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아침, 망자 생전에 늘 고향 섬 바다를 바라보며 한숨짓던 바닷가에 정말로 바윗돌로 된 큰 배 한척이 닿아 있었으니. 뿐이야. 그 배 어언 찬물결을 헤치며 해변을 떠나 바다로 떠나가는데 뒤라서 곡절을 물을소냐. 그 딸아이 혼령을 거둬 싣고 옛 고향 섬으로 데려다주려는 길인 것을.²⁹

모녀가 죽고 난 뒤 어느 날 바닷가에 홀연 바윗돌로 된 큰 배 한척이 나타난다. 모녀의 서로에 대한 애뜻한 그리움을 전해들은 사람들에게 이 배의 진위 여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모녀의 가슴 아픈 이별과 이루지 못한 재회에의 그리움을 자신들 일처럼 안타깝게 여기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무거운 돌배가 하루라도 빨리 파도를 헤치고 나가 딸의 혼령이나마 어미의 혼령에게 가 닿기를 자기 일처럼 기원할 뿐이다. 이러한 기원은 성장한 딸의 아들이 직접 배를 타고 가서, 그 돌배가 배의 모양과 비슷한 갯바위섬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멈추지 않는다.

사람들은 더욱 모녀의 사연에 가슴아파하고, 아들은 자신의 아들에게, 그 아들은 또 자신의 아들에게 돌배에 얽힌 사연을 들려주며 선대로부터 들어오던 돌배 이야기를 사실로 믿고 싶어 한다. 그리고 어느 날, 선대 어른의 청년시절처럼 한 젊은이가 바위섬을 찾아갔다가 놀라운 사실을 목격한다.

그리고 그 섬이 차츰 눈앞 가까이 다가들기 시작하면서 그는 이때까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광경에 한동안 넋을 놓고 말았다.

섬 위엔 언제부터지 크고 작은 수많은 돛대와 색색의 돛폭들이 세찬 바다 바람 속에 힘차게 솟아올라 흔들리고 있었다.

젊은이가 나중 알게 된 일이지만, 그것은 두고두고 옛 모녀의 일을 잊지 못한 그의 마을 사람들이 이날까지도 그 모녀를 위해 바위섬 곁 뱃길을 지나갈 때마다 늘 새

29. 이청준(2007). “천년의 돛배”, 『그곳을 다시 잊어야 했다』, 열림원, 31쪽.

로 꽃아 꾸여준 기원의 작은 뭇폭들이었다.

그래 그 섬이 젊은이 눈에는 여전히 바다에 떠 있는 갯바위 섬으로만 보인 게 아니었다.

그 오랜 이야기 속의 돌배가 이날도 가엾은 딸의 혼령을 싣고 바다 건너 그리운 어머니에게로 먼 뱃길을 새로 떠나고 있음이었다.³⁰

선대의 기억을 좇아 돌배를 찾은 젊은이가 목격한 것은 누가 꽃았는지 모를 “수많은 뭇대와 색색의 뭇폭”들이었다. 짐작할 수 없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녀의 아픔을 “자신들 일”처럼 인식하고 혼령으로나마 모녀가 재회하기를 바라는 따뜻한 마음이었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어느 시대에 일어났는지를 확인하는 일은 무의미하다.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지만 이 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를 사는 엄마와 아들이기 때문이다. 이 일은 또한 바닷가에서 일어났지만 공간이 산이나 들어도 무방하다. 이 땅에서 일어난 일로 짐작되지만 이국이어도 소설이 주는 감동을 훼손하지는 않는다. 즉, 공간을 확인하고, 시대와 민족 등의 동일성을 찾는 일은 전혀 무의미하다. 중요한 것은 현재를 살고 있으면서도 엄마는 “자신이 겪은 일처럼 촉촉한 눈빛으로 절절하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먼 핏줄”인 아들은 엄마가 이야기를 들려주기 전에 이미 갯바위섬을 배로 착각했다는 점이다. 그럼으로써 “개인의 한과 꿈의 기원이 만인의 것”³¹이 되는 선형적 고향이 살아있는 완전한 게마인샤프트를 재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³²

이처럼 「천년의 뭇배」는 개인과 공동체가 운명을 같이하는 유기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학생들은 운명적으로 “나와 타자가 서로 연결되어 있”³³음을 그리

30. 위의 책, 36쪽.

31. 이윤옥(2007). “소설이 무엇인지, 무엇이여야 하는지”, 『그곳을 다시 잊어야 했다』, 열림원, 311쪽.

32. 나와 타인, 자연과 인간이 선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은 기본적으로 동질성의 공동체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때의 동질성의 공동체는 나와 타인, 국가, 인종의 차이에 따른 배제의 원칙이 작동하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이 원활적 세계로 환원되는 총체성의 공동체라 할 수 있다. 김수이 역시 동질성의 공동체의 긍정적인 형태로 유기적 공동체를 들며 유기적 공동체야말로 ‘온전한 인성’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라 역설하고 있다. (김수이(2014), “공동체, 나눔, 글쓰기-공동체에 대한 재인식과 ‘공-존재’로서 글쓰기 주체의 위상 재정립”, 148쪽.

고 있는 「천년의 돛배」를 읽으면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개인과 개인을 묶고 있는 기원으로서의 공동체를 상상할 수 있다. 또한 유기적인 공동체의 상상은 자신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엄마와 아들이 돛배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학생들 역시 섬모녀의 사연에 가슴 아파함으로써 타인의 감정에 공감할 하는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게 한다. 이때 공감능력이 증진되었다는 것은 타자와 더불어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능력이 신장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천년의 돛배」는 학생들에게 공동체 의식의 필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³⁴

Ⅲ. 이질적 존재들의 소통 공동체: 이신조, 「엄마와 빅토리아」

‘우리’라는 표현은 대체로 “어떤 것의 공유”³⁵를 전제로 한다. 그것은 물질일 수도 제도일 수도, 가치일 수도 있는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는 긍/부정의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 서로 다른 ‘우리’ 안에 내재된 공동성의 부합이나 상충을 통해 가치 판단이 가능할 뿐이다. 공동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바로 공동성의 상충에 따른 부작용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끊임없이 호명해야 하는 이유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의 실존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인간 실존의 전제 조건과 분열의 원인으로서의 모순을 안고 있는 공동체의 양면성을 파악하고 긍정의 공동체를 발견해냄으로써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일 터이다. 그 해법으로써 낭시는 “소통”을 제안하고 있다.

낭시에 의하면 “소통은 소통 가능한 것의 질서 내에 들어가 있지 않”³⁶다. 끊임없이 같음을 추구하며 궁극적으로 완전한 화합을 요구하는 ‘우리’와 달리 소통은 ‘너와 나’를 추구한다. 이때의 ‘너와 나’는 “차이와의 만남”³⁷을 의미한다. 예컨대, ‘너’와 ‘나’는

33. 허정(2013). 앞의 논문, 413쪽.

34. 이 외에도 유기적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작품으로 「관촌수필」(이문구), 「원미동 사람들」(양귀자), 「장석조네 사람들」(김소진) 등을 들 수 있다.

35. 김형주(2014). 앞의 논문, 175쪽.

36. Maurice Blanchot · Jean-Luc Nancy(2005). 앞의 책, 128쪽.

차이를 가지고 단독적으로 존재하지만 ‘와’에 의해 서로를 대면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가까움과 내밀함 속에서 ‘사이’라는 간격은 사라지지 않”³⁸게 함으로써 개인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공동성을 추구하도록 한다.

이신조의 「엄마와 빅토리아」는 차이와의 소통 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동일성 공동체의 기원이 가족에 있고 그 끝이 인종, 국가에 있는 점을 생각할 때 동일성 공동체의 균열을 가장 심각하게 보여주는 것은 세계화로 인한 서로 다른 문화, 인종간의 만남에 따른 갈등일 것이다. 「엄마와 빅토리아」는 이러한 인종적 차이와의 만남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있다. 특히 다양성의 공동체가 표방하는 차이를 대하는 ‘관용적 태도’³⁹를 내포하지 않고 단독자로서의 개인과 개인의 소통을 그린다는 점에서도 학생들로 하여금 완전한 공동체의 긍정성을 내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박 여사는 자리에 앉지 않은 채 그들 가족이 버스 안쪽으로 들어오길 기다려 흑인 남자와 눈을 맞추었다. 그리고 말했다.

“굿모닝!”

흑인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굿모닝.”하고 대꾸했다.

박 여사는 아이들을 앞세우고 통로를 걸어오는 흑인 여자에게도 알은체를 했다.

“굿모닝!”

흑인 여자가 놀란 듯 반색을 하며 “오우, 굿모닝.”하고 인사를 받았다.⁴⁰

사카이 나오키는 “우리를 모이게 하는 것은 우리 사이의 공통성이 아니라 전달의 어려움을 잘 알면서도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⁴¹라고 말한다. 로버트는 공동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접촉을 통해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수용

37. 사카이 나오키(2005). 『번역과 주체』(후지이 다케시 역), 이산, 53쪽.

38. Jean-Luc Nancy(2010). 『무위의 공동체』(박준상 역), 인간사랑, 76쪽.

39. 웬디 브라운에 의하면 관용은 여전히 주체를 위한 것으로 위협받는 전체를 지속시키면서 여전히 동질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교묘한 타자성의 관리 방식이다. (Wendy Brown(2010). 『관용』(이승철 역), 갈무리, 62쪽 참조.)

40. 이신조(2009). “엄마와 빅토리아”, 『현대문학』 657호, 76쪽.

41. 사카이 나오키(2005). 앞의 책, 53쪽.

하는 여유로움을 가질 때 진정한 공동체가 될”⁴²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진정한 공동체는 익숙한 존재들과의 만남이 아니라 ‘낯선 무엇’과 만나고자 하는 의지를 통해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엄마와 빅토리아」에서의 박 여사는 ‘소통’을 통해 진정한 다양성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박 여사는 출근길에서 만난 낯선 피부색을 가진 이방인들에게 거리를 두지도, 그렇다고 지나치게 친절을 베풀지도 않는다. 어느 순간 눈이 마주치자 “싱긋 미소를 지어 보”일 뿐이다. 그러한 행동이 “다른 여느 예순 두 살들과 자신이 구별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아니다. 박 여사의 그러한 행동은 매일 같은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는 낯선 사람에 대한 여유로움의 표현일 뿐이다.

가벼운 미소를 지어보였을 뿐이지만 그러한 행동은 결과적으로 결코 비슷하지도, 서로에게 속하지 않은 박 여사와 빅토리아 부부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게 되는 계기로 작용한다. 다음 날 다시 만난 정류장에서 빅토리아 부부는 박 여사에게 먼저 차에 오르도록 배려하고, 먼저 버스에 오른 박 여사는 자리에 앉지 않고 기다렸다가 빅토리아 부부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한다.

박 여사가 미소를 지어보이자 빅토리아는 다소 마음을 놓는 듯했다. 그러더니 이내 설레는 말투로 무언가 장황하게 얘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와 그에 대한 되물음과 되풀이 설명, 말의 억양과 속도, 손짓과 표정과 눈치를 총동원하는 박 여사와 빅토리아의 의사소통은 그 자체로 둘만의 언어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아! 큰딸이랑 엄마가 한국에 온다고?”

빅토리아가 손가락으로 여신 숫자를 표시했다.

“응? 바로 다음 달에? 전에 말했던 것보다 빠르네. 7월에나 온다더니. 알았어, 알았어. 그래서 빅토리아가 기분이 좋았던 거구나. 아이고, 좋겠네. 콩그레추레이션 Congratulation!”

빅토리아가 활짝 웃으며 박 여사의 손을 잡았다.⁴³

42. Roberto Esposito, Yves Michaud 외(2003). 『문화란 무엇인가2』(강수현 역), 시공사, 142쪽.

43. 이신조(2009). 앞의 글, 97쪽.

박 여사와 빅토리아 부부의 '소통'이 진정한 공동체성을 보여주는 이유는 그들이 차이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일성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볼 때 박 여사와 빅토리아 부부는 완벽하게 이질적이다. 나이, 취미, 학력, 거주지, 인종, 국적 중 어느 것도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여사와 빅토리아 부부는 “차이를 대면하려는 의지”⁴⁴를 가지고 내밀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위로를 받는 관계가 된다. 빅토리아 부부와 소통하기 위해 박 여사는 딸에게 영어 표현을 물어본 뒤 한글로 적어놓고, 빅토리아는 떠듬떠듬 한국어로 박 여사에게 말을 건넨다. 그마저도 쉽지 않을 때면 둘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와 그에 대한 되물음과 되풀이 설명, 말의 억양과 속도, 손짓과 표정과 눈치를 총동원”함으로써 둘만의 소통을 이어나간다. 또한 이러한 소통은 둘의 관계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소통의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빅토리아 가족과 박 여사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본 승객들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하거나 말을 걸어”오는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박 여사의 딸이 말했던 것처럼 박 여사는 “근대적 인간”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신조의 「엄마와 빅토리아」는 이처럼 소통가능하지 않은 관계들의 완벽한 소통을 보여줌으로써 이질적인 존재들의 공동체를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주고 있다. 특히 어느 한쪽에 경도되지 않은, ‘너와 나’의 소통으로서 차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와’를 그대로 인정하고 유지하는 한편, 하나가 되어가는 새로운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⁴⁵

IV. 존재 나눔으로서의 함께-있음: 황순원, 「맹산 할머니」

모든 인간은 최초로는 탄생을, 최후로는 죽음을 경험한다. 불량쇼는 그 사실이 공동체의 유일한 근거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진정한 공동체는 축소된 형태의 사

44. 허정(2013). 앞의 논문, 415쪽.

45. 이 작품 외에도 차이와의 소통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중국어수업」(김미월), 「루카」(윤이형), 「배웅」(전성태), 「성묘」(전성태), 「영영, 여름」(정이현) 등을 들 수 있다.

회가 아니며 연합을 통한 융합을 지향하지도 않는다. 사회가 아니므로 공동의 과제를 수행하지도 않고,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다. 공동체의 유일한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죽음의 대속” 뿐이다.⁴⁶

낭시 역시 공동체의 본질은 미완성을 원리로 삼기 때문에 본래부터 실체가 없거나와 융합의 대상도, 목적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낭시는 공동체라는 용어 대신 “더불어-있음” ‘공동-내 존재’ 그리고 결국에는 ‘함께-있음’⁴⁷과 같은 표현들을 더 선호한다. 이와 같은 블랑쇼와 낭시의 견해는 ‘죽음’이라는 인간의 유한성을 공동체의 원리로 삼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데, 그들에 의하면 죽음은 아무 것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의 “불가능한 연합”⁴⁸을 가능하게 한다. 그런 점에서 황순원의 「맹산 할머니」는 완벽한 존재의 공동체를 재현해내고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이상한 게 있었다. 그것은 이 천식증 노인과 맹산할머니와의 사이였다. 다 같이 혼잣말인 이 두 늙은이는 서로들도 통 말이 없었다. 꼭 서로 처음 만난 알지 못하는 새의 사람들 같았다. 천식증 노인이 맹산할머니네 집에 와있게 된 것이 벌써 여러 해째 되건만. 끼니때만 해도 맹산할머니는 한 번도 말로 알리는 법은 없었고 천식증 노인이 그저 할머니 부엌 등자하는 눈치로써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이 새에 끼인 키 큰 젊은이도 별로 말이 없어 보였다. 동네사람들의 말이, 이 젊은이는 본래 국수집 중머리(심부름꾼)인데 투전에 미쳐 노파네 집에 와 있다는 것이었다. 끼니때가 되면 먼 발치에 앉았다가 두 늙은이 중 누가 밥을 남겨놓으면 그걸 끌어다 먹고 하면서.⁴⁹

46. Maurice Blanchot · Jean-Luc Nancy(2005). 앞의 책, 24-26쪽 참조.

블랑쇼가 생각하는 공동체의 유일한 목적은 공동체가 타인에 대한 헌신을 그가 죽음 앞에 처했을 때조차 항구적으로 보여준다는 데 있다. 타인이 고독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타인이 대신 죽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동시에 타인이 자신에게 부과된 이 대리 죽음을 또 다른 자의 것으로 넘겨줄 수 있도록 하는, 죽음의 대속만이 연합을 대신할 수 있다고 블랑쇼는 생각한다.

47. Jean-Luc Nancy(2010). 앞의 책, 55쪽.

48. Maurice Blanchot · Jean-Luc Nancy(2005). 앞의 책, 17쪽.

49. 황순원(2000). 『늬/기러기』, 문학과 지성사, 273쪽.

위의 예문에 나와 있다시피 천식증 노인과 키 큰 젊은이와 맹산 할머니는 어떤 동질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 맹산 할머니가 한 때 하숙을 치킨 했지만 소설 속 어느 곳에도 천식증 노인과 키 큰 젊은이가 할머니에게 하숙비를 치른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맹산 할머니가 선한 의지로 그들을 돌보는 것도 아니다. 맹산 할머니는 굳이 두 사람의 거처와 식사를 챙기지도 않지만 그들을 내쫓지도 않는다. 그저 그들이 자신의 집에서 기거하도록 내버려둘 뿐이다.

낡은 집에는 맹산할머니와 병인만이 남게 되었다. 노파는 그냥 말없이 혼자 부엌동자를 했다. 과히 힘들어하지 않고 개숫물 그릇을 들고 나오곤 했다. 그러나 노파의 눈은 더 눈꺼풀이 내리덮여 정기를 잃고 있었다. 동네 사람 중에는 노파더러 속히 동회에 알려 병인을 병막으로 데려가게 해야지 그냥 놔뒀다가는 큰일난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적잖았으나 노파는 그저 잠자코 그런 말을 받을 따름이었다. 동네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밤낮없이 노파는 병인의 머리맡에 앉아 이마에 찬물찜을 해준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천식증 노인은 열에 떠 정신이 없다가도 노파가 미음을 떠넣어주면 싫다는 듯이 눈으로 떠보다가도 그것이 노파인 줄을 알고는 순순히 받아먹는다는 것이었다.⁵⁰

모든 인간은 “유한성”⁵¹으로 인해 공동체를 이룰 수밖에 없다. 이때의 유한성은 “탄생(시작)과 죽음(끝)과 같이, 우리가 자신의 것으로 소유할 수 없는 것으로, 자신이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에서 부각되는 존재의 미완성과 결핍됨”⁵²을 말한다. 실제로 모든 인간은 시작과 끝이라는 한계를 갖는데 이 한계에 대해서는 누구도, 심지어 그 자신도 관여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취약성에 의해서도 인간은 공동성을 갖는다. 취약성은 ‘나’의 신체에서 기인한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신체는 끊임없이 타인에게 노출되며 나와 타자를 접촉하도록 한다. 그럼으로써 나(신체)는 공적인 인간으로 변모한다. 이러한 취약성을 지각할 때 비로소 윤리적인 인식이 가능해진다 고 버틀러는 말한다.⁵³

50. 위의 글, 274-275쪽.

51. Jean-Luc Nancy(2010). 앞의 글, 48쪽.

52. 허정(2013). 앞의 글, 421쪽.

53. Judith Butler.(2008). 『불확실한 삶』(양효실 역), 경성대 출판부.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맹산 할머니」의 맹산 할머니는 존재의 공동체성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맹산 할머니는 죽음에 무방비로 노출된 천식증 노인을 병막으로 데려다 놓으라는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가까이에서 그를 간호한다. 낭시의 표현대로 ‘함께-있음’을 실천하며 천식증 노인의 죽음을 자신과 관계된 사건으로 연결시키는 공동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다 맹산 할머니는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 죽음의 원인이 간병에서 기인한 것일 때, 천식증 노인이 맹산 할머니의 집에서 기식만 하지 않았더라면 맹산 할머니가 천식증 노인이 앓았던 장티푸스에 전염돼 죽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천식증 노인이 맹산 할머니의 곁에 있게 된 것은 맹산 할머니의 의지와 상관없는 일이다. 맹산 할머니는 다만 자신(신체)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천식증 노인을 받아들이는 도덕성을 발휘했을 뿐이다.⁵⁴ 이처럼 맹산 할머니는 전혀 알지 못할뿐더러, 아무 것도 공유하지 않은 천식증 노인과 ‘함께-있음’으로써 존재를 나눈다. 또한 천식증 노인의 죽음을 나눠가짐으로써 완벽한 공동체를 구현해낸다.⁵⁵

V. 맺음말

공동체는 인간 실존의 전제 조건이다. 동질화에 따른 개인성의 함몰, 타자 배제 등의 부정성을 경계하면서도 여전히 공동체를 논해야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개인을 포기하지 않고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한 공동체의 발견은 공동성을 잃어버린 학생들에게 더불어 사는 삶의 즐거움과 중요성을 가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긴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소설은 ‘나’와 ‘타자’의 개인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나’와 ‘타자’가 존재론적으로 묶여있음을 알려

54. 이러한 맹산 할머니의 삶의 태도를 이남호는 “무아지경의 경지”라 말하고, 임신희는 “있어야 할 인간상”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이남호(2010). “다시없이 낮은 존재”, 『현대문학』672호, 289쪽.

임신희(2012). “황순원 전후 소설의 휴머니즘 성격”, 『현대소설연구』50호, 454쪽.

55. 이 작품 외에도 함께 있음의 중요성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작품으로 『물 한 모금』(황순원), 『너와 나만의 시간』(황순원), 『도루코 면도기와 프로야구 시즌』(김숨), 『당신들의 천국』(이청준) 등을 들 수 있다.

준다는 점에서 공동체 교육에 활용하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공동성을 잃어버린 학생들은 소설을 읽고 공감하면서 소설이 말하고 있는 공동성을 내면화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소설에 나타난 공동체의 긍정성은 첫 번째로 총체성이 살아 있는 유기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특히 이청준의 「천년의 돛배」는 개인과 공동체가 운명을 같이하며 진정한 게마인샤프트를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개인과 공동체가 존재론적으로 묶여있음을 깨닫게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소설은 아무 것도 공유하지 않는 타자와 소통하려는 노력에 의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이신조, 「엄마와 빅토리아」). 소통은 같음이나 화합을 추구하지 않는다. 너와 나의 만남 자체를 중요시함으로써 ‘와’에 의해 개인성을 유지하는 한편 타자와의 내밀한 만남을 추구하도록 한다. 이러한 소통은 특히 개인성을 유지하면서도 공동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대학생들로 하여금 공동체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로 소설은 삶의 유한성과 신체의 취약성으로 인해 개인이 타자와의 공동성을 선협적으로 획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한성은 인간 모두가 공유하는 성격이다. 또한 인간은 신체로 인해 언제나 타자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유한성과 취약성을 깨달을 때 개인은 타자와 존재론적으로 ‘함께-있음’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황순원의 「맹산 할머니」는 그러한 ‘함께-있음’의 존재 나눔을 잘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에게 공동체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상으로 소설에 나타난 공동체적 교육 요소와 그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와 같은 공동체적 요소를 잘 나타내고 있는 소설 텍스트의 발굴은 학생들에게 공동체를 교육시킴에 있어 매우 유의미한 작업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이러한 텍스트를 어떻게 교육 방법에 적용시킬까의 문제일 것이나, 보다 자세한 논의는 다음 논문으로 기약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 김수이(2014). “공동체, 나눔, 글쓰기”. 『한국언어문화』, 제54집, 139-166.
김형주·최정기(2014). “공동체의 경계와 여백에 대한 탐색”. 『민주주의와 인권』, 14권 2호, 159-191.

- 박준상(2010). “무위의 공동체의 몇몇 개념들에 대하여”. 『철학과 현상학연구』, 46호, 61-86.
- 방진하(2014). “맥킨타이어 ‘서사적 자아’ 개념의 교육적 의미 탐색”. 『교육철학연구』, 36권 2호, 71-99.
- 심성보(2000). 『도덕교육의 담론』. 학지사.
- 양선미(2015). “공동체 교육에 있어서의 소설 활용 가능성 연구”. 『한국학연구』, 제52집, 137-157.
- 이남호(2010). “다시 없이 낮은 존재”. 『현대문학』, 672호, 286-289.
- 이신조(2009). “엄마와 빅토리아”. 『현대문학』, 657호.
- 이윤옥(2007). “소설이 무엇인지, 무엇이어야 하는지”. 『그곳을 다시 잊어야 했다』, 303-323.
- 이청준(2007). “천년의 돛배”. 『그곳을 다시 잊어야 했다』.
- 임신희(2012). “황순원 전후 소설의 휴머니즘 성격”. 『현대소설연구』, 50호, 449-481.
- 정명중(2011). “감성 공동체의 발견”. 『감성연구』, 3권 1호, 75-99.
- 정재림(2013). “공감의 상상력과 문학교육”. 『어문논집』, 69호, 85-111.
- 최병두(2000). “공동체 이론의 전개과정과 도시공동체운동”. 『도시연구』, 6호, 32-50.
- 최숙기(2013). “인성 교육을 위한 독서 지도 방안”. 『청람어문교육』, 47호, 205-232.
- 허정(2013). “유한성과 취약성이라는 공통성”. 『다문화콘텐츠연구』, 14호, 409-450.
- 홍은숙(2002). “공동체주의 교육의 개념 연구: 사회적 실제에의 입문으로서의 교육” 『교육사교육철학』, 27집, 173-197.
- 황순원(2000). 『눈/기리기』. 문학과지성사.
- 사카이 나오키(2005). 『번역과 주체』(후지이 다케시 역). 이산.
- Fritz Pappenheim(2003). 『현대인의 소외』(황문수 역). 문예출판사.
- Gyorg Lukacs(1985). 『소설의 이론』(반성완 역). 심설당.
- Hannah Arendt(1996). 『인간의 조건』(이진우·태정호 역). 한길사.
- Jean-Luc Nancy(2010). 『무위의 공동체』(박준상 역). 인간사랑.
- Judith Butler(2008). 『불확실한 삶』(양효실 역). 경성대 출판부.
- Martha C. Nussbaum(2013). 『시적 정의』(박용준 역). 궁리.
- Maurice Blanchot·Jean-Luc Nancy(2005). 『밝힐 수 없는 공동체/마주한 공동체』(박준상 역). 문학과지성사.
- Roberto Esposito, Yves Michaud 외(2003). 『문화란 무엇인가2』(강수현 역). 시공사.
- Wendy Brown(2010). 『관용』(이승철 역). 갈무리.

■ Abstract ■

Community Education Elements Depicted in Novels

SEON-MI YANG***

Today, college students promote self-development without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community. They are experiencing the destructiveness of personality. A fiction that draws the conflictual relationship with the basic aims of community life can be a tool used in raising students awareness on the importance of community life and seeking a community to have experiences with a true life. First, the fiction shows an organic community life seeking a holistic life. The organic community refers to a space with the totality of life. This space shows a fateful connection between myself and other. Second, the fiction shows the communication community of heterogeneous existences. Communication enables individual to recognize the difference between 'you' and 'myself' not 'together' and seeks a confidentiality by a word, 'and', ultimately creating community among the different existences spontaneously. Third, the fiction shows 'being together' by sharing the existence, which is the ultimate goal of community. 'Being together' considers human finitude, 'death' as a principle of community; however, 'death' makes impossible unity of unshared people feasible. Students who read the fiction will create the above-mentioned sympathy and realize the importance of community life.

Keywords: community, totality, organic community, different existence, communication, sharing of existence, being together, sympathy

■ 논문투고 : 2015년 4월 30일 논문심사 : 2015년 5월 6일-5월 21일 게재확정 : 2015년 6월 10일

본인이 투고한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없고 타인의 논문을 표절하지 않았음을 서약합니다. 향후 중복게재 또는 표절된 것으로 밝혀질 때에는 논문게재 취소와 일정 기간 논문원고 제출의 제한 조치를 받게 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 MOKWON UNIVERSITY